

경제사업 활성화로 순이익 1위

농협, 새 희망을 연다

<3> 광주 비아농협

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은 농업협동조합 정신을 심본 발휘하며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도·농복합형 농협으로 정평이 나있다.

1970년 설립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해온 비아농협은 농촌의 도시화속에서도 농업인 조합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동과 정(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다. 본점을 포함해 광산구 지역에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30명에 조합원이 1900여명이다. 준조합원만 6만9000명에 이르고 자산규모 7000억대에 26여억원(2014년 말 기준)의 순이익을 올리는 지역 내 순이익 1위를 자랑하는 든실한 조합이다.

이러한 성장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협조가 밑거름이 됐다. 특히 조합이 소비지향 조합으로서 길을 잡고 경제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선것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 비아농협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18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주유소를 매입했다. 정량·정품 유류만을 취급한 데다 최소 마진만 남기고 저렴하게 판매해 개장 첫해 80여일동안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는 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00억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영업에 열심이다.

또 비아농협은 일찍이 하나마트를 통한 지역 농축산물 판매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조합원을 지원하고 지역민에게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장시장을 운영해 배추·갓갈·천일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했다. 최근에는 264㎡ 규모의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광주축협 축산물 판매점을 설치하는 등 상품 공급과 진열을 고객중심으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예상보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농수축산물 판매에 힘써 24억원의 달성한다는 목표다.



비아농협은 농촌의 도시화속에서도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민이 협동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취미교실로 진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에서 박흥식 조합장이 조합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산구에 12개 지점 운영

주유소 운영 지난해 80억 매출

지역사랑회 구성 소외계층 지원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조합의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복지사업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는다. 비아농협은 지난해 조합원 700여명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30여명이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전체 조합원 1904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해줄 방침이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수원지구 본점 신청서에 마련한 종합회관에서 이뤄진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종합회관은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과 도농복합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곳 은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되기도하고, 때로는 각종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장 역할도 한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 기능도 갖춰, 조합원과 고객들의 삶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취미교실로 가락장구·해피요가·댄스스포츠·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만 3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역사랑 실천 활동도 으뜸이다. 비아농협은 지역주민 330여명으로 지역사랑회를 구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랑회원은 매달 1000원씩 적립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찾아 밀반찬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경로당과 회관에 냉난비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로조합원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장수(영성) 사진 촬영 사업도 전가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기자재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의 재해 발생에 따른 영농의욕 상실과 손해를 대처하기 위해 보험가입과 보조금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토불이 중·소마트 만들어 유통체계 혁신”

박흥식 조합장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내실있는 일류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달 조합장 동시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박흥식(55) 조합장은 10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신용사업만으로는 도시농협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경제사업에 힘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4년여 동안 부끄럽지 않은 조합장이 되기 위해 스스로 갈고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며 “조합원 모두가 가족이었고, 농협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조합장의 소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제사업 차원에서 주유소 사업에 이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박 조합장은 저운창고 부지를 활용한 장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심권에 자리한 농협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의 중요성인 강조되는 만큼 7만명에 달하는 준조합원에게도 농협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능하다면 배당금 등 수익배분도 늘려 지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조합장은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 “경쟁력을 갖춘 일명 ‘신토불이 창고형 중·소마트’를 만들어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소비시장 회복되나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111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기준치(100)를 넘어서며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가 12일 내놓은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최근 12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11을 기록했다.

이는 앞으로 소매유통업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봄철 날들이객 증가와 계절 상품 수요 확대 등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높은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재경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전분기 61보다 41포인트 상

승한 102로 집계됐다.

2월 설 명절 특수와 더불어 졸업과 입학이 시즌, 밸런타인데이 등 다양한 시즌 수요가 겹치면서 매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별로는 모든 업태가 기준치를 웃돌며 전체적으로 실적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냈다.

대형마트(116)는 불황 장기화로 침체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신선식품에 대한 상시 가격할인 정책에 나서면서 방문고객 수와 객단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백화점(110)의 경우 봄 정기세일이 본격화되고 지난해 하반기에 윤달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과 올해 봄 쌍춘년에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혼수상품 등의 판매가 증가해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조짐과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 등으로 지역 내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호전될 것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해 광주 금형산업 매출 1조2000억

수출비중 34%... 지역 효자산업 자리

지난해 광주지역 금형산업 매출이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금형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금형산업은 자동차, 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뿌리산업으로서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10년 매출 9300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1조원대를 넘어 데 이어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비중이 26%에서 34%로 증가하는 등 수출 중심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금형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

광주디자인센터가 오는 20일까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자(기업)를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근로자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말한다.

입주 신청자격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디자인 관련 업종 우대)로, 모집 규모는 10여개 기업이며 신청자의 연령이나 거주지 제한은 없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디자인 분야 및 제조, 지식서비스분야 등 유망한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초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62-611-515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4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4	16	26	40	41	3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3,696,297,750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8,007,090	28
3	5개 숫자 일치				1,395,356	1,766
4	4개 숫자 일치				50,000	87,873
5	3개 숫자 일치				5,000	1,444,728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